

정읍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 확정

도시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도로·교통 등 22개 서비스
2029년까지 도시문제 해결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도시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대영유비텍, 아이나레컴퍼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역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정읍형 스마트도시 전략과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용역과업 추진 경과와 최종 계획안이 발표됐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스마트도시계획은 ▲도로·교통 ▲환경·안전 ▲문화·관광 ▲건강·복지 ▲행정·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스마트 서비스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반려동물 놀이터에 ICT 기술 접목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도시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수립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미 지난달 이과



지난 7일 정읍시장에서 열린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학수(왼쪽 세번째) 시장이 스마트도시 계획의 실현을 위한 행정의 집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을 마친 후 ‘스마트도시법’ 제10조에 따른 공고도 완료했다.

이후에는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시민 리빙랩 운영, 전문가 컨설팅, 부서 면담 등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스마트도시 중장기 계획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읍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정읍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최경식 남원시장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23개 읍면동 순회간담회…생활현장 불편·건의사항 청취

최경식 남원시장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23개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연다.

남원시는 시장이 지역 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민생 현안과 시정 방향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자 순회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까지 각 읍면동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이·통장을 비롯해 발전협의회장, 노인회장, 남면 새마을지도자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중장기제를 비롯한 주요 시정 활동에 협력한 이·통장 및 사회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사항과 각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 회의에서 벗

어나 편안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어 그동안 전달되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개선, 고령자 복지 확대, 마을안전 강화,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하루 2개 지역을 기본으로 일정에 맞춰 최대 3개 지역까지 유동적으로 진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시정 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시민과 함께 더 큰 남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14개국 글로벌사절단 고창 문화유산 체류

10월 2~22일 개최 고창 세계유산축전 앞 콘텐츠 등 제작해 홍보

고창군이 오는 10월 ‘2025 고창 세계유산축전’ 개최를 앞두고 14개국 20명의 글로벌사절단이 방문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고창을 방문한 사절단은 국가유산청이 올해 전국 4개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축전을 알리고자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인 대상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다.

이들은 세계유산축전 개최도시인 제주시와 경주, 순천을 비롯해 이날 마지막으로 고창을 방문했고 각 지역 세계유산을 탐방·체험하며 콘텐츠를 제작해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2025 고창 세계유산축전’은 오는 10월 2~22일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인돌 유적지와 고창갯벌에서 열린다.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개막식, 특별기획전, 유적 투어, 국제학술회의, 환경캠페인, 고인돌 세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글로벌 사절단의 고창 방문은 전 세계의 관광객에게 고창을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을 소개할 기회였다”라며 “2025 고창 세계유산축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칠보면 석탄마을 주민 숙원 해결

지방시대위 공모사업 선정…16억원 투입 생활환경 개선

정읍시 칠보면 석탄마을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읍시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물로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모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전북자치도의 1차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2차 대면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대상에 선정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총 15억8000여만원(국비 10억5100만원, 지방비 4억1300만원, 자부담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보수,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위생·교통환경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인 석탄마을은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가구의 53.1%에 달하고 노후화된 담장과 좁은 진입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높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정읍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농촌,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무럭무럭 자라거라” 고창 풍천장어 6만 마리 방류

풍천장어생산자협 용선교 일원
국제자연보존연맹 ‘멸종위기’ 분류
11월 CITES 부속서 등재 재논의
“보호어종 분류시 산업기반 위협”

고창군이 민물 신패장이 방류 사업을 펼치는 등 풍천장어 자원 회복에 적극적으려 나섰다.

고창군은 풍천장어생산자협회가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해 지난 7일 용선교 일원에서 민물 신패장어 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패장어 방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 협약(CITES)’ 등재 저지를 위한 자발적 대응이다. 뱀장어 자원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협회는 물론 전북자치도, 고창군, 고창수협, 고창군어촌계협의회 등 수산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뱀장어는 2014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올해 11월 CITES 부속서 등재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실제 등재가 이뤄질 경우 뱀장어는 보호어종 분류로 인한 수급 불안정 때문에 산업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현재 국내 뱀장어 양식업은 2024년 기준 약 514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내수면 어업전체 생



지난 7일 고창군 용선교 일원에서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한 풍천장어생산자협회의 신패장어 6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고창군 제공>

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뱀장어는 민물에서 서식하다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강하성 어류다. 뱀장어 양식은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신패장어를 포획하거나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한

신패장어를 활용하고 있다.

풍천장어생산자협회 유삼경 대표는 “이번 방류를 통해 뱀장어 자원회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시로 36